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in Korea's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강지혜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중재학과 박사과정

Hate the sin, Love the sinner

〈Mahatma Gandhi〉

I. 문제의 제기

II. 국제통상체제하의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함의

III.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 비교

IV.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V. 결론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창조경제’¹⁾의 리더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경제라는 미래상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은 과연 무엇인가?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은 최근 개봉한 공상 과학영화인 Avengers: Age Of Ultron²⁾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공상 과학 영화인

1)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 국민의 창의성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 창조경제타운 (2015.05.11 방문) <https://www.creativekorea.or.kr/content/intro_1>

2) <Avengers: Age Of Ultron> 은 2015년에 공개된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로, 마블 코믹스의 동명의 슈퍼히어로 팀 만화가 원작이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을 공유하는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들의 크로스 오버 작품인 어벤저스의 후속작이다. 2014년 3월 대한민국 서울과 의왕에서 일부 장면이 촬영되었다. 위키백과사전 (2015.05.11 방문) <<http://ko.wikipedia.org/wiki>>

Avengers: Age Of Ultron가 흥행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영화에는 인공지능 로봇을 비롯하여 다양한 최첨단 IT 기기가 등장한다. 특히 삼성전자는 영화제작사 마블사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영화에서 삼성 로고가 표시된 다양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기기를 선보였다. 세계는 지금,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최첨단 IT 기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간의 창조물을 법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일컬어 ‘지식재산권’³⁾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주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실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영화 Avengers: Age Of Ultron과 같은 창작물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만 한정된 성공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통해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권 창출 현황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의 경우, 한국은 전 세계에서 5위로 국제 특허 출원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⁵⁾ 반면, 국제통상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분쟁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상당히 미흡하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2위에서 26위로 하락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는 2012년 31위, 2013년 40위, 2014년 41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⁶⁾

한국의 국제 지식재산권 창출 대비 보호 전략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부실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연도별 박스오피스 통계에 의하면, <Avengers: Age Of Ultron> 은 2015.04.23 개봉하였고, 불과 3주만에 국내 관객수 900만 돌파, 누적 매출액 800억에 육박하고 있으며, 스크린 수, 상영횟수 모두 2015년 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해외 박스오피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2015.05.11 방문)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main/main.do>>

- 3) 지식재산기본법 제1조,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 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신지식재산”이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3.“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4) 지식재산권기구(WIPO)는 1967년, 지식재산권 서비스, 정책, 정보 및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이다. 현재 회원국은 188개 국가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다.

WIPO (2015.05.12 방문) <<http://www.wipo.int/about-wipo/en/index.html>>

- 5) WIPO, Infographics - International patent, trademark and design filings under the PCT, Madrid and Hague systems (2014), 1쪽

- 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IMD 2014 세계경쟁력 연감 분석(2014), 2쪽, 4쪽

결과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상품⁷⁾에 따른 국가적 손실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위조상품 유입으로 인한 지하경제⁸⁾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정품가액 기준 연간 약 11조 4,000억원, 실제 유통가액 기준 약 2조 3,000억 원으로 추정한다.⁹⁾ 국외의 위조 상품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유형과 무형의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조 상품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탈세에 따른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¹⁰⁾ 둘째, “위조 상품의 만연은 국내 관련 정품 대체 소비를 위축시켜 이와 관련된 국내 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한다.”¹¹⁾ 셋째,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시장 신뢰 저하로 사회적 자본 손실에 따른 암묵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¹²⁾ 넷째, “위조 상품의 불법적인 유통이 만연될 경우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어 대외 거래 상 불리한 점으로 작용한다.”¹³⁾ 국외에서 유입되는 위조 상품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한국이 그동안 체결한 국제 협정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통상체제하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호는, 지식재산권 협정 중 형사절차와 구제로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국제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하여 비교 고찰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연구를 통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부에서는 국제통상체제하의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정중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하여 비교 연구한다. III부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을 비교 연구한다. 양자간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국가별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구제제도의 적합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IV부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

- 7)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적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불법으로 타인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1 쪽, 특히정,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8)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 모두를 포함.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2014) 5쪽. 현대경제연구원, 지하경제 해소방안, 경제주평 13-10 (2013)
위조 상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은 음성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무자료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탓에 추적이 쉽지 않아 세원 포착의 어려움 발생.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5쪽
- 9) (유입규모) 가정: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위조 상품 규모를 국내 총 수입액의 2%로 가정.
OECD, 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2009), Magnitude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of Tangible Products: An Update 참조
식: 국외 유입 위조 상품 규모 = 2% x 총 수입액
추정: 연평균 국내 유입 위조 상품 규모는 약 104억 달러로 2013년 평균 원/달러 환율로 환산 시 정품가액 기준 약 11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위조 상품 가격이 정품 가액의 약 20%라고 가정할 경우,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은 약 2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정됨. 정품가액 대비 위조 상품의 실제 유통가액 비중을 통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하여 대략 20%로 가정함(10% 가정시 1조 1,000억원, 30% 가정시 3조 4,000억원),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6쪽.
- 10)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8쪽.
- 11)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8쪽.
- 12)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9쪽.
- 13)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위조 상품의 지하경제 규모 및 손실 추정 (2014) 9쪽.

제도가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합한 안전망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핵심주제어 :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 FTA, 국제통상체제, WTO Trips, ACTA